



# 한국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49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http://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음력 10월 15일)

## “비상계엄 1년, 부조리한 세상 바꿔야”

### 어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회견

22일까지 제주시청 앞 ‘제주광장 123일의 기록’ 전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부·국회·기관·단체 책임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제주에서 내란의 완전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평등사회로의 사회대전환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특별남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은 위헌적 계엄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고개 숙였다”며 “하지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변호인단과 이를 용인하는 재판부 등 내란 응호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에 맞서 연대와 평등의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윤석열 탄

핵을 넘어 불평등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는 광장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있고, 폭우와 폭염 속 속도경쟁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2·3 계엄 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열

었다.

이와 함께 제주행동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제주시청 구 버스 정류장에서 ‘12·3 비상계엄 1년, 제주광장 123일의 기록’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올해 4월 4일 현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파면에 이르는 여정에 함께한 제주 시민들의 기록을 담았다. 양유리기자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등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도, 내년 국비 128억 추가 확보

4·3 피해보상 70억 증액… 푸드테크센터 20억도 “정부와 국회 상대 예산 절충 활동의 결과” 자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11개 사업 1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사업 10건 58억원과 국가 직접 지원 사업 1건 70억원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0억 원) ▶제주 권역 인공지능 대전환(AX) 사업(5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5억원) ▶어촌체험형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9억5000만 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5억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1억5000만원) 등이다. 계속 사업에는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6억5000만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사업(2억5000만원)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는 제주4·3 피해 보상 70억원 증액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 권역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되면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제주 사회와 산업을 재편할 발

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1993년 건립된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 지원 설계비가 반영돼 위판장 수용 한계와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국비 증액은 지난달 5일 정부 예산안 공청회 이후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펼친 절충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학년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학년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 실시

정규수업시간에 프로그램 운영하여 초등학생 비만율 해소에 기여  
-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시 종목별 지도자 파견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력 증진 및 비만율 해소에 기여

사업  
목적

학생이 선택한 종목을 학교 또는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전문지도자와 함께 하는 『1학년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학생선택형】사업으로 정규수업 시간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 우선순위별 선정

- 1순위 : 읍·면지역 초등학교(전학생 참여)
- 2순위 : 동지역 200명 이하 원도심 초등학교(전학생 참여)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대상 공모를 통한 신청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  
064-717-7144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